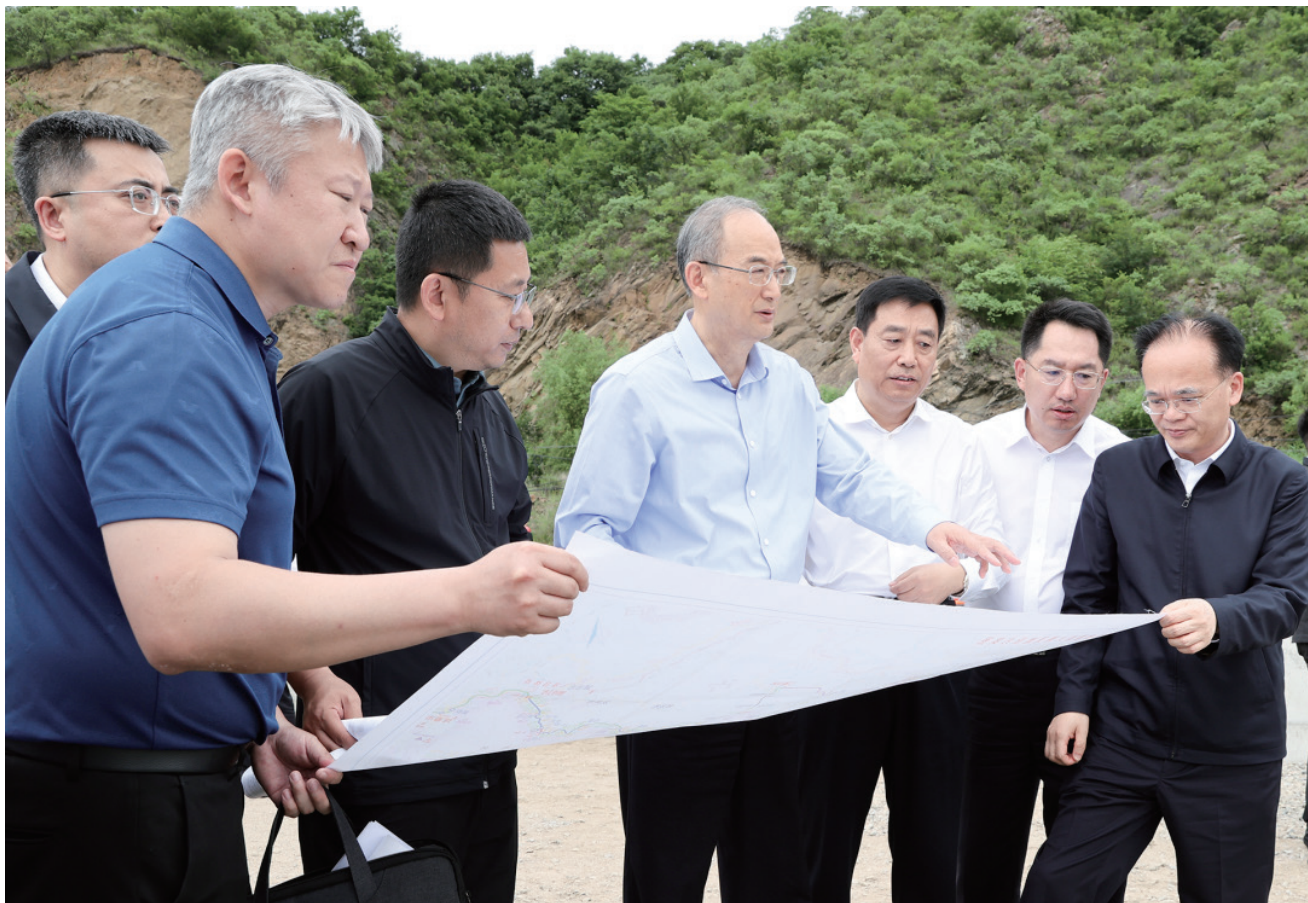




황강 G331 건설과 홍수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 현지 검사 시 강조 변경 기초시설을 부단히 보완하여 향촌진흥과 흥변부민 추진해야



▲ 6월 16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연변에서 조사연구를 진행, G331 부분적 도로 구간의 건설 상황을 현지답사했다

6월 16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연변에서 조사연구를 진행, G331 건설과 홍수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을 현지 검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변경(沿边) 기초시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G331이라는 변경개방관광대통로를 잘 건설, 관리, 운영하여 '일통백통'(一通百通)을 실현하고 향촌진흥과 흥변부민을 촉진해야 한다. 길림성 G331 변경개방관광대통로는 1,437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변경 도로'로 불리고 있다. 전 구간이 관광화된 관광 수용력과 관광객 체험감을 대폭 제고시켜 변경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과 농업문화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황강은 일부 구간의 건설

상황을 현지답사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올해 국경절전에 전 구간의 건설 개통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심백고속철도와의 연결을 잘하여 각지의 관광객들이 '쾌속 도차, 깊이있는 체험 관광'(快旅慢游)의 쾌적함을 더욱 잘 느끼고 상서롭고 여의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길림성은 특대 홍수의 피해를 입었는데 통정시 삼합진 남호제방의 홍수 피해가 심각했다. 지난해 10월, 황강은 현장에서 재건 상황을 돌아보고 강을 따라 전 구간의 제방 보강, 석봉 경사지 보호 등 업무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황강은 재차 이곳을 찾았

는데 홍수로 파괴된 구간이 전부 복구되고 도로가 새롭게 보수되었으며 제방에는 이미 석봉보호비탈(石笼护坡)이 설치되었다. 황강은 제방 사업조치가 제대로 실시된 것을 보고 시름이 놓인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복구에서 관련 지역과 응급, 교통, 수리 등 부문은 협동연동하고 힘을 모아 협력하면서 신속히 위험 구간을 긴급 복구했다. 광범한 기층간부들은 소홀하지 않고 엄격히 방비하고 사수하면서 제때에 과단성있게 대응을 전이시켰다. 길림 주둔부대와 소방장병들은 명령을 듣고 즉시 움직였고 돌격하여 최전방에서 싸웠다. 전 성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은 한마음한뜻으로

위험에 대해 '저수지 댐이 무너지지 않고 군중 사자가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모두의 아낌없는 노력을 충분히 긍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응급관리부 등 국가 부서들은 길림성의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복구에 정책, 자금 등 방면의 대폭적인 지지를 제공해주었다. 국가전력망, 중국교통건설, 중국건설, 중국중철, 중국철도건설, 중국건설 등 중앙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응급구조 구간에 참여하여 전력, 교통, 수리, 통신 등 시설을 신속히 회복하도록 재해지역을 도와주었다. 국가 관련 부서와 관련 중앙기업들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한다.

현재 변경 전 구간 제방 보강이 긴박하고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현재 장마철 홍수방지의 관건적인 시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각지, 각 부문은 '창구기'(窗口期)를 단단히 파악하고 '구조보다 방지'(防胜于救)의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여 홍수방지 업무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잘 틀어쥐어야 한다. 수리와 홍수방지 시설의 순찰검사를 앞당겨 조직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변경의 모든 구간 제방 보강과 석봉보호비탈 설치를 계속 추진하여 재해방지 피해감소 능력을 한층 더 증강해야 한다. 올해 장마 형勢와 홍수 상황에 근거하여 종합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응급 대비책을 완벽하며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인원, 물자 등 각종 준비를 충실히 하며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준비해두고 사용하려 할 때 준비해둔 것이 없어서는 안된다. 수리, 교통 등 부문은 '15.5' 전방계획을 잘 세우고 중대한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호가복, 리위, 류개가 검사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연변, 지역 특산물로 한국 시장 개척 추진

연변 4개 기업 한국 구매업체와 무역협정 체결, 계약금액 3,000여만원

연변주상무국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5 한국 서울국제식품전시회에서 연변주의 4개 기업이 한국 구매업체와 현장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액이 3,000여만원에 달했다. 연변주상무국이 이끄는 연변경제무역대표단은 10개의 현지 기업과 함께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현지의 인삼구복액, 말린 채소, 목이버섯, 특색전병, 오크누룽지, 말린 명태 등 지역 특산물과 랭면, 비빔면 등 연변 품미의 즉석조리식품 계열 제품들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국제상인들이 찾아와 상담을 했다. 연변주상무국은 전시회 기간 연변과 한국 구매업체는 여러 분야, 여러 항목의 협력 의향을 달성해 현지 대외개방과 국제영향력 제고에 새로운 동력에너지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연변주상무국은 서울 주재 연변주정부 판사처와 연합하여 기업과 한국수입협회와의 접목을 조직하고 특별소개회를 개최하여 연변 특색식품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전시했으며 중한 상품창고 구축 및 온라인·오프라인 전 채널 홍보 등 여러 항목의 협력에 대해 공동인식을 달성했다. 또한 최근 왕청 도원소목이버섯 실업유한회사의 목이버섯 무역 협력을 가동하여 단일제품 무역을 심화할 예정이다.



전시회 기간 연변주상무국 사업일군들은 길림성경제무역대표단과 함께 정관장 분사 한국인삼공사를 방문하여 경제무역교류 좌담회를 열고 전략적 협력협의를 체결했다. 랑측은 연변주 인삼 재배 자원 우세와 한국 정관장 백년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연구개발, 품질 인증, 다국채널 건설 등 분야에서 깊이있는 협력을 진행하여 중한 인삼산업이 자원 상호 보완에서 가치사슬 공동창조로 나아가도록 추진했다.

이외 연변주상무국은 다국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측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윤달한국지사와 다국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창고 등 분야에서 협력 의향을 체결했으며 한국 개인 직구 면세정책을 리용하여 연변의 특산물과 한국 상품의 쌍방향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다국전자상거래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 상품 공유공급 플랫폼과 연변전용구역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 중국신문넷

연길변경사무감독공서 옛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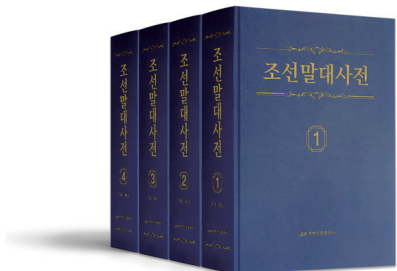


6월 18일, 연길변경사무감독공서(延吉边务督办公署) 옛터가 제3차 보수수건 끝에 참신한 모습을 드러냈다. 연길시 평화로와 버들숲거리 교차부에 위치한 연길변경사무감독공서는 1908년에 애국장령 오록정장군이 주관하여 건설한 청나라 관서 건축으로 '수변루'(戍边楼), '도윤루'(道尹楼)라고 불리웠으며 '동부변강 제1루'(东疆第一楼)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연길변경사무감독공서는 청나라말부터 중화민국 시기까지 연변의 최고 행정권력

기관의 소재지였으며 현재 연변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보존된 청나라 건축이기도 하다. 연변주 및 연길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시종 고도의 력사적 자각으로 문화재 보호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였는데 1984년과 2016년에 연길변경사무감독공서에 대해 두차례의 보수를 진행한 적이 있다. 2013년 5월, 연길변경사무감독공서는 국무원에 의해 제7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확정, 중요한 력사 및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다. / 김파기자

연변인민출판사, 《조선말대사전》 인터넷판 출시

40여만개 올림말 수록,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선어 대형 공구서로 평가받아



제31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말대사전》 인터넷판 출시 및 데이터 오픈 플랫폼 '취진'(聚典) 입주(入驻)식이 북경 국가회의중심에서 개최되었다.

길림성당위 선전부, 상해세계출판그룹에서 주최하고 연변인민출판사와 상해사서출판사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관련 단위 책임자 및 출판계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조선어 언어 연구를 집대성한 《조선말대사전》은 총 4권으로 2,500만자에 달하며 수십명 편찬자들의 참여로 10여년에 걸쳐 지난 2023년에 출판되었다. 해당 사전은 40여만개의 올림말(词条)을 수록하고 있으며 내용은 정치, 경제, 법률, 언어, 문학, 예술, 미술, 의학, 약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 47개 분야를 아우른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선어 단어, 관용구, 속담, 격언을 중심으로 외래어, 방언, 학술용어, 과학기술용어, 고대조선어 및 시대 발전에 따라 생겨난 신조어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선어 대형 공구서(工具书)로 평가받으며 '2013년-2025년 국가 사전 편찬출판 계획', '민족문자 출판물 특별

별 보조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한편, 상해세계출판그룹이 기획, 설계하고 상해사서출판사가 연구, 개발 및 운영을 맡은 '취진' 데이터 오픈 플랫폼은 2020년 8월에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약 200종의 우수한 공구서적, 600여만개의 올림말, 근 10억자에 달하는 데이터 내용을 업로드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표제어 수장량이 가장 크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비교적

완벽하게 커버하여 광범위한 서비스 응용 씨나리오를 가진 공구서 데이터 오픈 플랫폼이다.

행사에서 연변인민출판사 당위 서기이며 사장, 총편집인 랑문화는 "《조선말대사전》 인터넷판이 '취진' 데이터 오픈 플랫폼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민족문자 출판이 디지털 기술과의 깊이있는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조선어의 전파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세계출판그룹 당위 위원이며 부총재인 모문도(毛文涛)는 축하에서 "《조선말대사전》의 합류는 '취진' 데이터 오픈 플랫폼의 내용 체계를 풍부하게 하여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다원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의 언어류 공구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선어 언어문화 분야의 중요한 리정표로 평가받았으며 참가자들은 공구서와 디지털 플랫폼의 융합이 향후 조선어 연구, 학습, 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했다. / 김가혜기자



· 가요 ·



작사: 림해 작곡: 김봉호 노래: 최유나